

# Issue Comment

Quant Strategist 조재운  
jaeun.jo@daishin.com  
Strategist JR 김정윤  
jungyoon.kim@daishin.com

## 한-미 3Q 실적 점검 ②: 이번주는 미국 리테일에 주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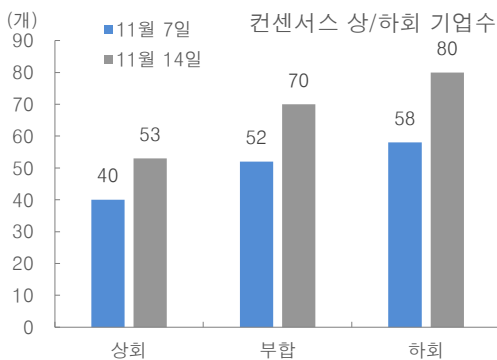
### 70% 이상 진행된 KOSPI 실적시즌. 컨센서스 하회 비율은 39.6%

- 14일 기준 KOSPI 3Q22 실적 시즌 진행도는 69.6%를 기록했다. 컨센서스가 존재하는 기업 290개 중 실적 발표 기업은 203개로 컨센서스 상회 기업수는 53개(26.2%), 부합한 기업은 70개(34.7%), 하회한 기업은 80개(39.6%)를 기록했다. 컨센서스 상회 비율은 지난해 26.7%에서 26.2%로 소폭 하락, 하회 비율은 38.7%에서 39.6%로 상승했다. 3Q22 실적 전망(기발표된 기업은 발표치, 미발표 기업은 컨센서스 사용)의 경우 영업이익은 54.2조원, 순이익은 39.3조원으로 지난해와 사실상 동일하다. 영업이익, 순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 17.9%, 19.1%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### 최근 일주일 영업이익 기여도 상위 종목 GS, 한국가스공사, 한국전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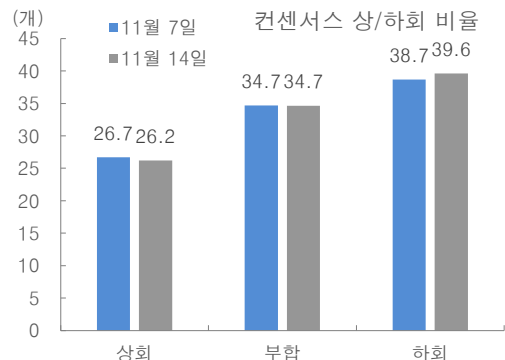
- 지난 7일 이후 최근 일주일 동안 집계된 영업이익은 8,949억원으로 해당 기업들의 컨센서스 합계인 9,041억원에 소폭 못 미쳤다. 순이익의 경우 162.4억원으로 컨센서스 합계 4,980억원을 대폭 하회했다.
- 종목별 영업이익 기여도를 보면 GS(4,475억원)가 컨센서스를 가장 크게 상회했다. 뒤이어, 한국가스공사, 한국전력은 각각 1,741억원, 1,045억원 상회했다. 상위권에 지역난방공사도 130억원 가량 컨센서스를 상회하며 유틸리티 종목들이 다수 위치했다.
- 순이익 부진의 원인은 넷마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. 넷마블은 매출액 증가에도 적자 규모 확대로 순이익은 -2,453억원으로 컨센서스 -247.1억원을 대폭 하회했다. 뒤이어 삼성생명도 1,082억원으로 컨센서스 2,654억원 대비 -1,572억원 기록했다.

그림 1. 3Q22 컨센서스 하회 기업 22개 증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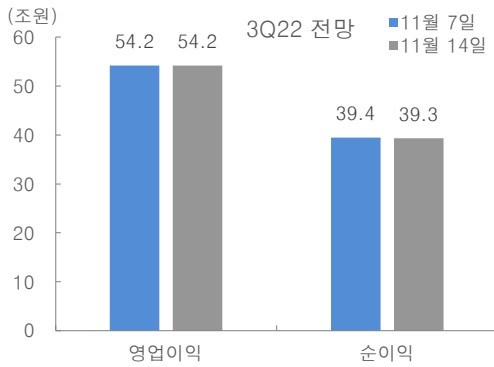
기준일: 2022년 11월 14일  
자료: FnGuide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그림 2. 3Q22는 컨센서스 하회 비율은 약 40%



기준일: 2022년 11월 14일  
자료: FnGuide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그림 3. 3Q22 실적 컨센서스는 전주대비 동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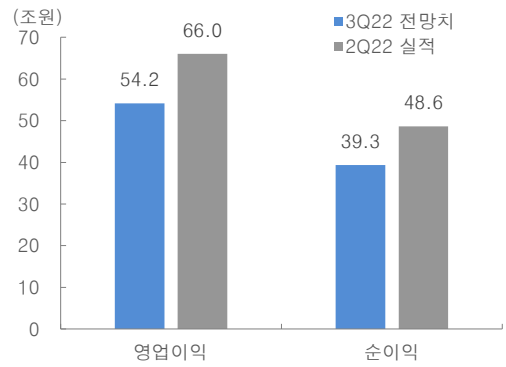


기준일: 2022년 11월 14일

자료: FnGuide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주: 실적 발표한 기업은 확정치, 미발표 기업은 전망치 사용

그림 4. 3Q 영업이익 전분기대비 17.9% 부진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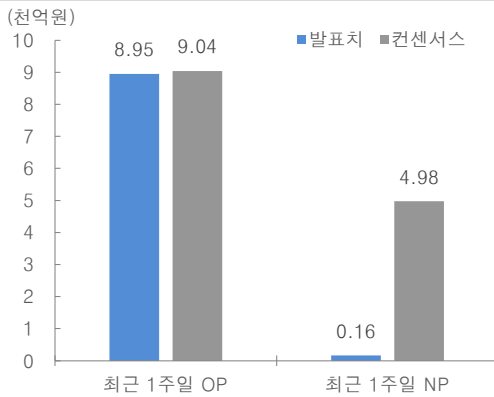


기준일: 2022년 11월 14일

자료: FnGuide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주: 실적 발표한 기업은 확정치, 미발표 기업은 전망치 사용

그림 5. 최근 1주 실적: 순이익 크게 부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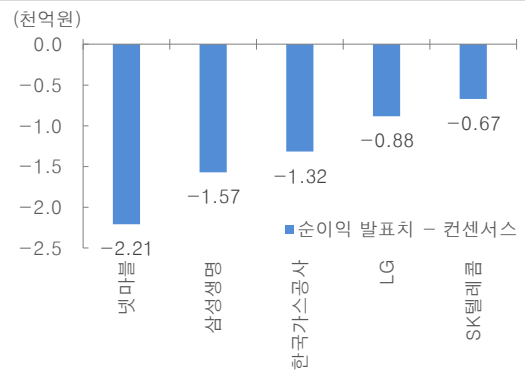


기준일: 2022년 11월 14일

자료: FnGuide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주: 실적 발표한 기업만 집계. 금융은 순이익 기준

그림 6. 주요 부진 원인은 넷마블, 삼성생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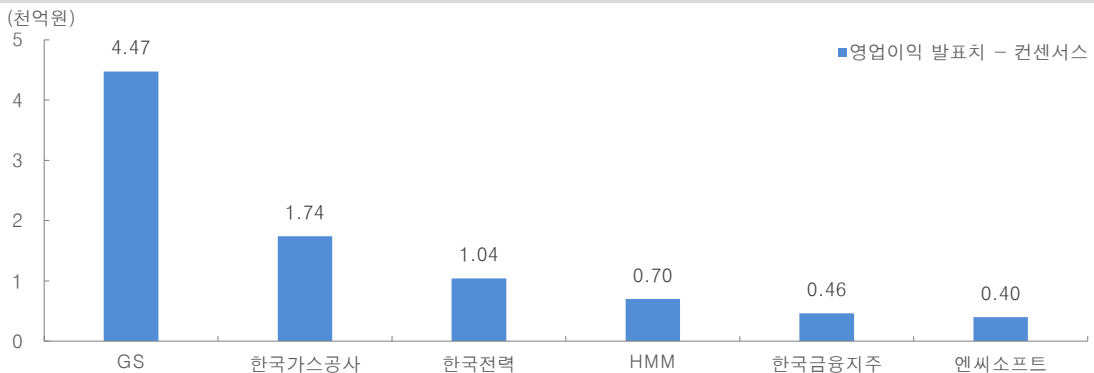


기준일: 2022년 11월 14일

자료: FnGuide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주: 실적 발표한 기업만 집계. 금융은 순이익 기준

그림 7. 컨센서스 대비 영업이익 상회한 상위 종목: GS, 한국가스공사, 한국전력, HMM, 한국금융지주, 엔씨소프트



기준일: 2022년 11월 14일

자료: FnGuide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주: 금융은 순이익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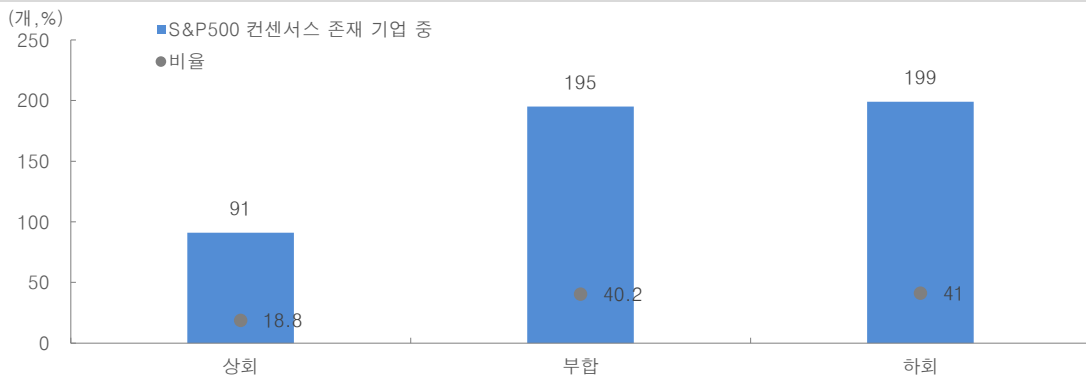
**S&P500 실적 시즌 마무리 단계. 영업이익-순이익 격차 확대**

- 미국 3Q22 실적시즌 진행도는 97.4%로 이제 마무리 단계이다. 실적 발표한 485개 기업 중 상회 기업은 91개(18.8%)로, 하회 기업은 199개(41%)였으며 195개(40.2%) 기업이 컨센서스에 부합했다. 한국 대비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기업 비중이 여전히 높았다.
- 3Q22 실적 전망(기발표된 기업은 발표치, 미발표 기업은 컨센서스 사용)의 경우 영업이익은 6,707억달러, 순이익은 4,903억달러로 전분기대비 18.3%, 24.1%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 전년대비 기준으로 각각 28.4%, 4.1%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 영업이익-순이익 간의 격차는 1,805억달러로 전분기대비 5.05% 증가하고 전년대비 무려 252.5%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- 이처럼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은 금융 업종의 순이익 급감 때문이다. 발표된 금융기업(65개 중 64개)들의 순이익은 전년대비 37% 감소했다. 금액 기준으로는 332.4억 감소했으며 특히 버크셔 해서웨이(전년대비 -130.3억달러) 부진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. 최근 한주 동안 실적 발표된 기업들이 순이익 합계는 30억달러로 컨센서스 합계 183.2억달러 대비 부진했다. 이 역시 위와 같이 버크셔 해서웨이 순이익이 -26.9억달러 적자(컨센서스 +64.8억달러)를 기록하면서 순이익 급감 영향이 작용했다.

**이번주 미국 소매기업 실적 및 가이드نس 주목**

- 지난 10월 중순부터 증시는 긴축 속도조절 기대감 유입을 시작으로 강한 반등세 전개되고 있다. 그러나, 이 과정 속에서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는 다소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. 이번주는 타깃, 홈디포, 월마트 등 미국 주요 소매기업 실적 결과가 예정되어 있어 최근처럼 증시가 급반등한 상황에서는 지난 8월 증시를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.
- 8월 중순 당시 타깃이 영업이익,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40%, 45% 하회하고 전년대비 기준으로도 모멘텀이 악화되었다. 미국 8월 소매판매도 전월대비 -0.4% 하락하며 예상치 0.1%를 하회했다. 소매기업 실적 악화와 소매판매 부진까지 가세하며 경기 악화 우려가 유입되었고 그 결과 7월부터 강한 반등세를 기록 중이었던 증시는 미국 소매기업 실적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하락세로 전환한 바가 있다.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라는 요인이 상대적으로 배제되었던 이번 상승세에서 또 다시 미국 소매기업들이 실적/가이드نس와 소매판매 결과에 따라 8월과 같이 증시 하방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이번주에 경계할 필요가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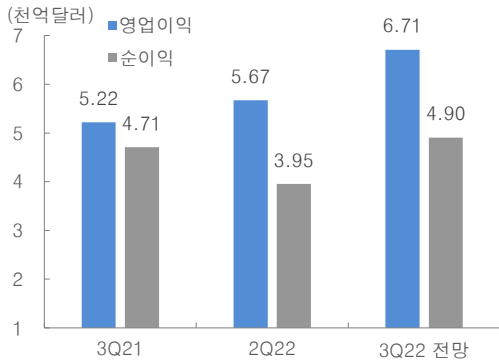
**그림 8. 마무리 단계인 S&P500 3Q22 실적시즌. 40%가 컨센서스에 부합**



기준일: 2022년 11월 14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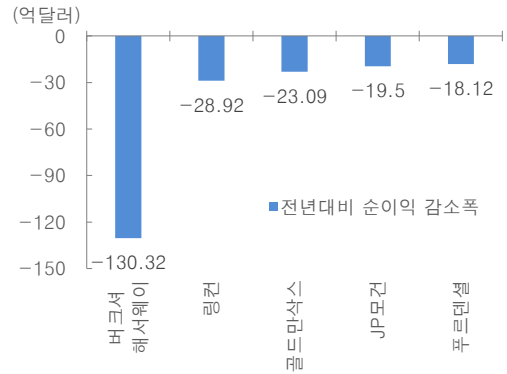
자료: REFINITIV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**그림 9. 3Q22 영업이익은 늘어났지만 순이익과 격차는 전분기, 전년대비 확대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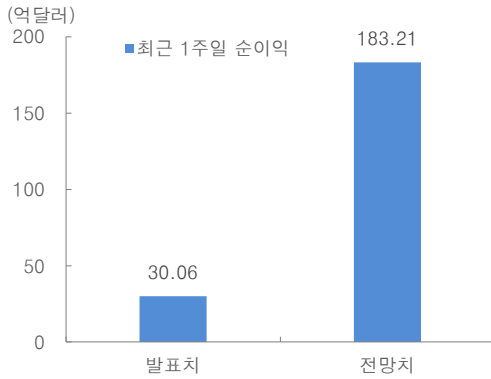
기준일: 2022년 11월 14일  
 자료: REFINITIV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
 주: 실적 발표한 기업은 확정치, 미발표 기업은 전망치 사용

**그림 10. 금융업 전년대비 순이익 감소 최대 기업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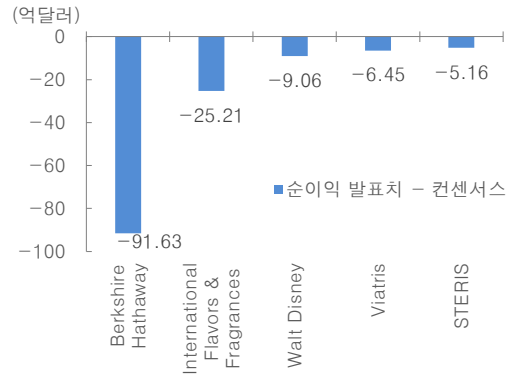
자료: REFINITIV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**그림 11. 최근 1주일 순이익, 컨센서스 대폭 하회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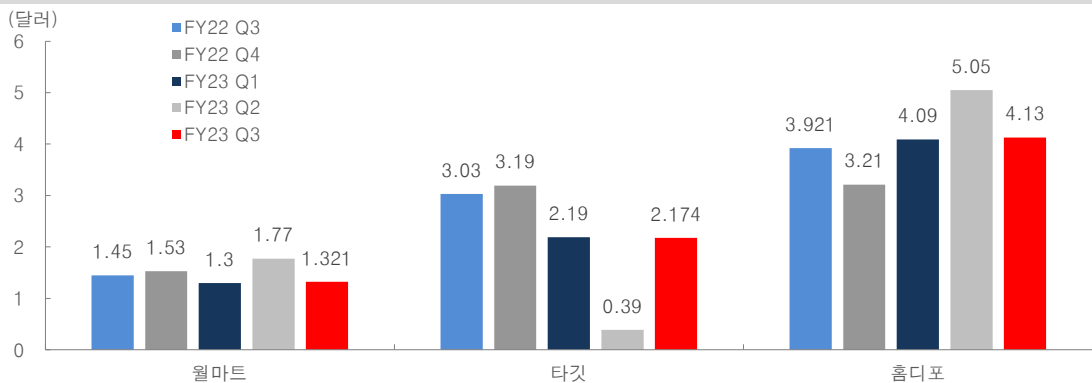
기준일: 2022년 11월 14일  
 자료: REFINITIV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
 주: 실적 발표한 기업 기준으로만 집계

**그림 12.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장 큰 폭 부진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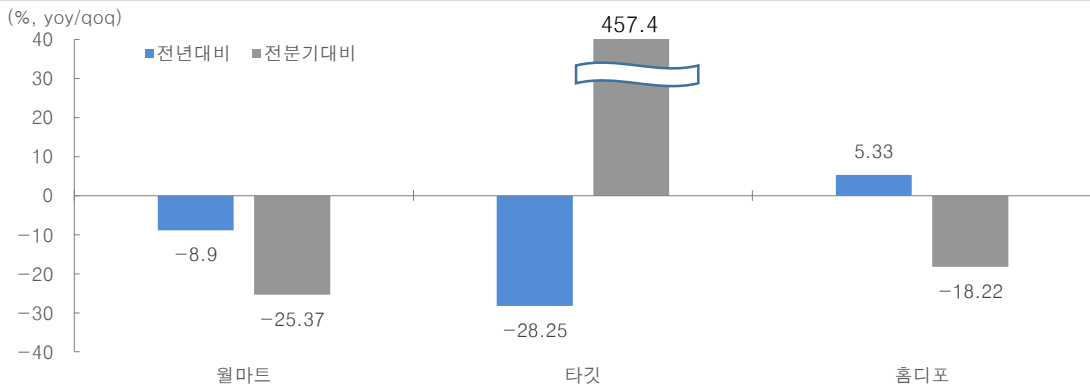
기준일: 2022년 11월 14일  
 자료: REFINITIV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**그림 13. 15일, 16일(현지시각) 미국 주요 소매업체 실적 발표 주목. 올해 1분기와 비슷한 수준 전망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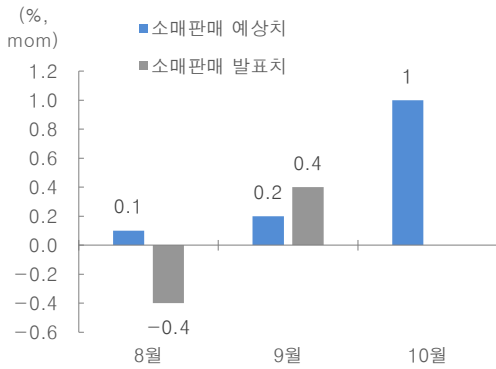
기준일: 2022년 11월 14일  
 자료: Bloomber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
 주: FY23 Q3는 전망치, EPS 조정 기준

그림 14. 주요 소매기업 실적 모멘텀 전망은 상이



자료: Bloomber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그림 15. 한국시각 16일 밤 미국 소매판매 예정



자료: Bloomber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그림 16. 지난 8월 하락전환 당시 기점은 미국 소매기업 실적 발표-경기 악화 우려 유입



자료: FnGuide, Bloomber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---

### Compliance Notice

금융투자업규정 4-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,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. (작성자: 조재운, 김정윤)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

---